

2025년 노인복지시설 우수종사자 표창

일 시	2025년 09월 30일	장 소	성북구청
시상자	가족처럼재가복지센터 손 순 레요양사 (김**어르신)		

추천내용 : 손순레 요양보호사께서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김**어르신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김**어르신은 독거로 거주하시면서 뇌졸중 수술 후 왼쪽 편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사람에게도 적대시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며 침대에서 누워만 계시려 하고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면 식당에 가서 술을 드시고는 주변 사람들과 말싸움해서 큰소리가 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셔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르신의 난폭함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순레 선생님이 어르신께 요양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침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시는 어르신을 모시러 식당에 다녀 오시곤 하셨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는 이른 시간에 어르신께 방문하여 정성껏 식사를 챙겨드리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여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는 시간에도 언제나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아침부터 식당에서 술을 드시며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르신께서 치매로 화장실까지 가지 않으시고 욕실 밖에서 화장실 쪽을 향해 소변을 보시면서 마루바닥과 화장실 문을 매일 젖게 만들고 소변이 묻은 바닥과 문에서는 당뇨가 심하신 어르신의 소변으로 인해 날파리가 쉽게 들끓어 마루와 화장실은 물론 방까지 날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손순레 선생님께서는 소변으로 젖은 마루바닥과 화장실 문을 수시로 닦고 환기를 시켜 어르신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심하신 어르신은 일상에서 수시로 집에 가야 된다고 짐을 싸고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이삿짐센터로 연락해서 전라도 정읍(예전 고향)까지 짐을 싣고가서, 자신의 집이라고 주인 없는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계셔서 정읍까지 내려가 모시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싸실 때마다 손순레 선생님께서는 어르신과 차분히 대화하고 회유하여 찾아온 돈을 은행에 다시 넣는 것을 도와드리고 짐도 풀어 정리해 드렸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어르신의 안부와 식사가 걱정되셔서 하루 한 번 이상 선생님의 급여 일정에 상관없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챙겨드렸으며, 최근 요로감염으로 어르신이 소변줄을 삽입하셨을 때에는 새벽과 늦은 시간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소변줄을 점검하고 소변 통을 교체하면서 어르신을 돌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소변줄을 뽑아 위급 상황이 발생 되면 구급차에 어르신을 모시고 수 차례 응급실에 동행하여 치료를 함께 해주셨으며, 병원 입원 중에는 어르신의 형편이 어려워 간병인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르신께서 밤마다 소리를 치셔서 병원에서 퇴원하라며 입원 치료가 어렵게 되자 어르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순례 선생님이 야간에 어르신 곁에서 일주일을 간병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르신의 위급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봉사해 주셨습니다.

도움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거동 불편한 치매 어르신을 돌보면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깊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주시는 손순례 요양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적을 치하하며 추천하는 바입니다.

